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언어 공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블로그 이웃이 추천해줘서 읽게 된 책이다.  
이번에 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읽어 보았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좋은 발음을 익히려면 듣기만 해도 된다는 망상도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피겨 스케이팅 세계 챔피언들을 열심히 보면 이튿날 아이스링크에서 트리플 루프나 더블 악셀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독서를 통해서 호기심이 채워질수록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단련법을 갈고닦을 필요는 없어진다.

우리는 한 번 넘어졌다고 자전거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지 않고, 눈발 위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스키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비록 고통스러운 멍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고난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 익히는 기술이 주는 즐거움은 점점 더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힘을 주어야 문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실수는 자기가 직접 저지른 것이다.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나 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으면 뇌의 정서적 영역에서 궁금증, 짜증, 공격성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것이 지식을 확실히 단단 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 실수에 화를 내지 말자.

이 공부는 젊은이를 기르고 노인을 즐겁게 하며, 좋은 시절을 더욱 빛내고 역경이 닥치면 안식처와 위안이 되며, 집에서는 기쁨이 되고 밖에 나가면 거리낌이 없으며, 밤을 지새우거나 나그넷길에 오르거나 시골에 내려가도 우리와 함께한다.

###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언어라는 것이 결국 꾸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수(시행착오)를 거쳐 늘어난 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고마운 책이다. 아울러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 16개국어를 배운 카토 할머니의 도전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